

[보도자료] 쿠팡, 봄맞이 ‘쿠파세’ 개최, 최대 80% 할인 “트렌디 패션 상품 총출동”

2025. 3. 6.



- 오는 16일까지 최대 80% 할인
- 나이키·타미힐피거·세터 등 500여 개 인기 브랜드 참여
- 다양한 ‘믹스 앤 매치’ 가능한 아이템 모아 ‘레트로’ 느낌 낼 상품도

2025.03.06. 서울 - 쿠팡이 봄 시즌을 맞아 패션 할인전 ‘쿠파세(쿠팡 패션 세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나이키·헤지스·타미힐피거 등 500여개 인기 브랜드의 패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쿠파세에서는 2025년 봄·여름 시즌 트렌드인 ‘스포츠 믹스 앤 매치(Sport Mix&Match)’ 스타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기 상품을 선보인다. 2024년 내내 유행했던 스포츠 테마 트렌드는 2025년에도 이어지며, 스포티한 아이템과 클래식한 아이템의 조합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나이키 에어포스1 (14만원대), 코닥어패럴 레인보우 데이 조거 팬츠(5만원대), 마인드브릿지 옥스퍼드 오버핏 셔츠(3만원대) 등 믹스매치 룩을 연출할 아이템을 대거 모았다. 미소 슬림핏 데님 팬츠(2만원대)와 마인드브릿지 브이넥 크롭 카디건(5만원대) 등 여성 의류 아이템도 인기가 많다.

‘레트로’ 느낌을 물씬 주는 미니 스커트도 준비했다. 망고 울 미니 스커트(3만원대), 로엠 울 미니 스커트(7만원대) 등이다. 짧은 기장의 A라인 스커트 종류로, 롱 코트나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매치해 레트로 룩을 연출하는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세터’가 이번 행사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파로(Faro) 가디건’과 클래식한 ‘로턴(Lawton) 셋업’ 등 다양한 스타일링 아이템을 제공한다. 자켓, 스웨트셔츠, 볼캡도 봄 시즌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특별 코너도 마련했다. 매일 인기 상품 9개를 특가에 선보이는 '하루 특가 상품' 코너와 더불어 '하루 특가 브랜드' '일주일 특가 상품' 코너 등을 구성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쿠팡제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인기 패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